

2015년 6월 1일 새벽 편집본 정리 말씀

어제의 말씀은 “말씀도 전해 주지만, 새 시대에 새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주를 증거해야 그들이 주를 깨닫고 죄를 사함 받고, 주와 더불어 뜻을 펴 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증거한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증거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일함으로, 보여줌으로 증거합니다.

자꾸 말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 씨를 뿌린바가 되어서 때가 되면 비바람이 불더라도 난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씨를 뿌려야 그들에게 결국 결실하게 된다. 힘차게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증거 하라.” 확실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힘을 들여 일하는 것도 더 힘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더 확실하게 잘되고, 힘을 덜 들여서 조금 하면 조금만 해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복음 말씀도 전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전하고 분명히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전해 주고, 분명히 전해 줘야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원찮게 전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쏘야지, 안 가르치려면 몰라도 아예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완전하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으니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역사의 말씀이 죽 흘러갔는데,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강하게 안 하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오면 구 역사는 건어치우니까 가면 갈수록 퇴폐해지고,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헌집은 자꾸 헌집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전해야 능력이 따르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표적이 일어나지, 가만히 있으면 표적이 일어납니까.

증거하는 것도 조금하다 말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조금하다 말면 안 됩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각 방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 증거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증거하라. 전하라. 가르쳐라. 지

혜로운 말씀을, 지식 있는 말씀을.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신령하게 전해야지, 그냥 전하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지혜로운 말씀으로 슬기롭게, 지식 있는 말씀으로 실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이상적으로 빛나게 만들 때는 반드시 보충해야 됩니다. 자꾸 더 닦고,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부족한 것을, 약한 것을 보충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충을 꼭 해야 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증거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자꾸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다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계속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하나님의 시대를 증거해 주고, 그리고 또 나를 증거해서 그들이 알고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바람 불고 비바람이칩니다. 누구든지 비바람 없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비바람이 불 때에, 눈보라가 칠 때에, 신앙의 환란 때에 견디고 이기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 있으나, 보이나 안보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시대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정중히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업고 무엇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탬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위함주의’가 되어서 해야지, 기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충성과 진실로 하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틀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 하는데, 열심히 증거해야 하나님도 같이 증거하며 역사 하신다. 그리고 꼭 증거해서 보충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꼭 보충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힘 있게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충해야지, 그냥 봐두면 되겠느냐? 한 번 더 때려 박든지, 두 번 더 때려 박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 썰기 박아서 같이 퐁퐁 묶어 놓든지 하며 보충 하라.” 했습니다. 보충 수업, 보충 인생들을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충만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

시웁소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 와 보충해서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4대 교리나, 30개론 말씀을 배웠으니 튼튼할 것 같아도 그래도 보충해야 된다. 한번 더 듣고, 다시 또 듣고, 다시 해 보라. 신앙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설 것이다. 만약 약하게 가다가 흑암과 어둠과 악한 자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될 때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튼튼케 하라. 한 겹줄은 약하다. 한 번 더 배워라. 두 번 배우면 더 강해질 것이다.”

두 겹줄로 하면 5배 이상 더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유혹하지 못할 것이며,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도전하고 싸워 의의 승리를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배우고 보충해서 또 배우고, 또 확실하게 서게 해 주시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시주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섭리 나라들이 잘되게 형통하며, 나라와 교회와 개인들이 그리함을 받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영, 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 하사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돌림이 충만하게 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낙을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모두 그리함을 받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해 주시시고, 또한 그들을 교훈시키사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받으면 의인들이 심히 슬픔의 베옷을 입게 되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행위들을 사로잡아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니 정녕코 그리함을 받을지이다.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사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

안녕!